

더불어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더욱 불확실해졌고 이에 따른 불안감과 새로운 사회적 부담은 국민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실정이다.

□ 지역공동체와 주민이 함께 만드는 생활 속 건강 돌봄 체계의 구축이 중요하다. 국가 책임 하에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공동체 중심의 건강 돌봄으로 성장해야 촘촘한 건강보장을 실현할 수 있다.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이 2026년 3월로 코앞에 다가왔고 정부가 다양한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있겠지만, 정작 노쇠, 장애, 질병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국민들이 살던 곳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료-요양-돌봄의 유기적 연계는 아직 요원하다. 인적 자원과 재원의 활용 그리고 통합정보지원을 위한 법적 보완이 아직 미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합적 연계강화, 지역맞춤형 접근, 건강돌봄센터와 같은 예방중심의 건강-돌봄 사업, 다학제적 협력 그리고 지역주민이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 이에 따라, 보건의료특위는 본 토론회를 주최하며, 국민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더욱 오랫동안 모두 함께 누리는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역할 강화와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그리고 관련 논의를 계기로 국민 의견에 귀 기울이며 지속적인 사회적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 본 토론회는 이건세(건국대 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영란 (동국대 간호학과 교수), 허현희(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각각 <소생활권 주민밀착형 건강돌봄센터의 기능과 역할>, <주민참여와 지역공동체 중심 건강돌봄>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 토론자로는 ▶김주연(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장), ▶조지현(의정부시 동부보건과 과장), ▶이성환(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 ▶김영남(전국보건진료소장회장), ▶임은실(대구보건과학대 간호학과 교수), ▶임종한(인하대 의대 교수), ▶임은정(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이 참여하고, ▶정혜선(한국지역사회공중보건연구소 학술위원장)이 사회를 맡을 예정이다.
- 토론회 진행(안)은 총 150분 동안 이루어질 계획이며, 발제와 토론에 각 60분을 배분할 예정이다. 유의미한 대화의 결과 도출을 위해 시간 운영은 당일의 토론회 진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보건의료특위를 이끄는 강청희 위원장은 “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더욱 오랫동안 모두 함께 누리는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첨부]

1. 국회토론회 포스터 1매 끝.



지역사회 건강돌봄에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역할과 주민 참여

일시: 2025년 5월 1일 (목)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

주최: 국회의원 남인순 /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주관: 한국지역사회공중보건연구소

개 회	사회: 정혜선 한국지역사회공중보건연구소 학술위원장
14:00~14:10	개회사 : 김혜경 한국지역사회공중보건연구소 이사장
14:10~14:30	인사말 : 남인순 국회의원 강청희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
14:30~14:40	사진 촬영
제1부 : 주제 발표	
14:40~15:10	소생활권 주민밀착형 건강돌봄센터의 기능과 역할 - 한영란 동국대 간호대 교수
15:10~15:40	주민참여와 지역공동체 중심 건강돌봄 - 허현희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
15:40~15:50	휴식
제 2부 : 지정토론	
좌장: 이건세 건국대 의대 교수	
15:50~17:00	김주연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장
	조지현 의정부시 동부보건과 과장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
	김영남 전국보건진료소장회 회장
	임은실 대구보건과학대 간호학과 교수
	임종한 인하대 의대 교수
	임은정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과장
17:00~17:30	종합토론
폐 회	

회원가입

한국지역사회공중보건연구소가 우리나라 공중보건과 지역보건기관의 혁신적 변화를 위해 첫 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의 조직 한국지역사회공중보건연구소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